

■ 발행 : 천주교부산교구 ■ 편집 : 전산홍보국 629-8750 (483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27번길 39 ■ jubo@catb.kr ■ 인쇄 : 주보인쇄사(809-20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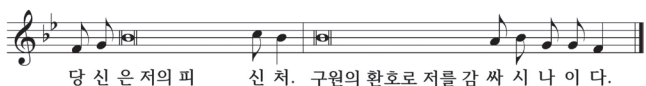
작품 : 양숙지 로사리아(부산가톨릭서예인회)

연중 제6주일

제1독서 레위기 13,1~2.44~46

화답송 시편 32(31),1~2.5.11 (◎ 7 참조)

◎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 나이다.



1.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은 이! 행복하여라, 주님이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 ◎
2. 제 잘못을 당신께 아뢰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았나이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당신은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나이다. ◎
3.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 바른 이들아, 모두 환호하여라. ◎

제2독서 코린토 1서 10,31~11,1

복음환호송 루카 7,16

◎ 알렐루야.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복음 마르코 1,40~45

영성체송 시편 78(77),29~30 참조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2월 16일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 차례예식은 4면, 설 전례는 5면에 있습니다.

(이번 주보는 설 미사에도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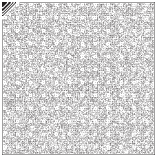


이 주간의 축일

♣ 11일 : 곱나라, 그레고리오 2세, 다티보, 라자로, 루치오, 베네딕토, 사투르니노, 세베리노, 아돌포, 암펠리오, 요나, 채드몬, 카스트렌시스, 칼로체로, 테오도라, 파스칼 1세, 펠릭스



말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



오늘 복음에서 나병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과연 그리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깨끗해진 그를 보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 하라고 하신다. 그러나 그는 가서 기어이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우선 그는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그냥 병자가 의사를 믿는 차원의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치료나 기적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다. 그래도 그를 가엾게 보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다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괜히 당신이 용한 의사쯤으로 소문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그러자 그는 문득 예수님의 진면목을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는 이제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그분을 믿게 되었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저는 사실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눈에 보이는 이 몸뚱이를 전부라고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몸쓸 병만 나으면 될 줄 알고 백방으로 용하다는 의사와 좋다는 약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드디어 그분을 만나 병이 나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제에게 몸을 보이고 조용히 살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병든 몸을 바라보며 나를 버린 세상과 부모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이 육신의 병 때문에 그분을 만났으니 저에게는 나병이 더 이상 원망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고 구원입니다.

저에게 나병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살다 보면 혹여 더한 병이 또 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거나 저렇거나 다 괜찮습

니다. 죽을 몸에 묶여 노예처럼 살던 과거의 나는 이미 죽었고, 그분을 통해 참나를 깨닫고 구원을 얻어 자유의 몸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오직 감사드리며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제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다만 있음 그 자체로 이토록 기쁘고 감사하니 놀라운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해야겠다고 작정하고 한 것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그리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지만 도저히 말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 그리되었습니다.”



권 경 렬
베드로 신부
남목성당 주임



석양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석양을 바라보라,
보이지 않는 희망이야말로 비로소 희망이니.



글. 강은교 글라라 시인(송도성당)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성가정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101.1MHz 울산 FM 94.3MHz 녹산 FM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2.12(월)~13(화)
권경렬 신부(남목성당 주임)
2.14(수)~17(토)
최연수 신부(금정성당 보좌)

사랑이 있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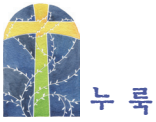
문자참여 #2340

월~목 12:15~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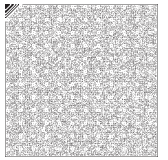
진행 : 우지민 아나운서
2.13(화) 함께하는 여정
출연 : 부산가톨릭신학원
(이동화 신부와 졸업생들)

2.14(수) 본당 리포터
출연 : 광안성당 김철현 라파엘

2.15(목) 퀴즈콘서트 성경에서 온 그대
출연 : 김종이 신부(남산성당 부주임)



선線



선을 그어 보셨나요? 직선이나 곡선, 아니 사선으로 그어 보셨어요?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기본이 되는 점과 선. 그 속에 마음이 담긴 줄 몰랐어요.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야 점과 선이 전부임을 알았으니까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책상에 선을 긋고 내 것 네 것 따지며 다투기도 했지요.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어서도 학연, 지연, 혈연으로 선을 긋더군요. 긋기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을 겪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선도 다르게 보니 달리 보였어요. 선이 경계만이 아니라 경계 너머에도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선과 조직으로 줄을 세우지요. 나도 덩달아 그으면서 경계를 넘지도 못하고 머뭇머뭇 망설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시선을 달리하며 다가오셨지요. 신과 인간의 경계를 넘어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와 함께 하셨지요. 당신의 삶을 보여주시고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은 선을 참 많이도 긋고 있더군요. 내 눈에 안 든다고, 내 말 안 듣는다고, 내 생각이나 뜻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손짓하고 발맞추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함께 있어도 호흡이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데 말이예요. 보고 듣기에 따라, 생각 맞추기에 따라, 손과 발맞추기에 따라, 생각하고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데 말이예요. 우리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시선이라면 어떠했을까요?

당신과 나 사이 어떤 선이 있나요
어떻게 바라보는 시선인가요
일곱 가지 색깔로 물어 볼게요
자 그럼, 선을 그어 볼 테니 선택하세요

첫 번째, 위에서 내려 그으니 빨간 벽이네요

두 번째, 아래에 받쳐 그으니 주황색 배가 되었어요

세 번째, 사선으로 그으니 노랗게 서로 기대고 있네요

네 번째, 위에 긋고 보니 따가운 햇빛, 굵은비도 푸르게 가려주네요

다섯 번째, 멀리 떨어진 선 안아 버리니 파란 하늘 동그라미네요

여섯 번째, 멀찌감치 떠난 것 같아, 한 줄 멀리 그으니 같이 가야할 남색 길이네요

일곱 번째, 시선 따라 다르게 보이니 다르게 말하네요, 잘 보라고 보라색이네요

그러고 보니 다 달라도 소중한 무지개 보이고 들리시나요, 아니라고요

이제 진짜 답을 알려 드릴게요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선택이 길이 되는 시선의 무지개

- 「시선視線」 -

■ 김 종 대 가롤로

망미성당 • 시인 gaserol@hanmail.net

한겨울
교구가
시작될 때

조조(Jozeau, Moyse 1866-1894) 신부와 부산본당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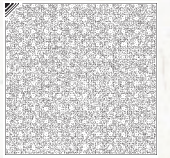
1886년 조선과 프랑스가 수호통상조약을 맺고 이듬해 그 조약이 비준되고 선교사들이 상주함으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로베르 신부는 경상도 지역과 충청도, 전라도 일부까지 넓은 지역을 혼자 담당하고 있었는데, 1889년 2월에 입국한 조조 신부는 3월에 로베르 신부의 신나무골로 부임했습니다.

조약 이후 경상도에 신자가 늘어나고, 부산은 외국과의 관문인 개항지로 발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상한 블랑주교는 1890년 초 조조 신부를 부산 첫 본당 신부로 임명하였습니다. 당시 경상도 남부 지역의 공소 25개 신자 수는 888명이었습니다. 조조 신부는 부산 시내에 성당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절영도의 조내기 공소(현 청학성당 수녀원 자리)의 김보윤(로무알도) 회장을 비롯한 신자들이 조조 신부를 맞이하려고 했고, 신부도 이를 승

낙하였습니다.

조조 신부는 섬이라는 조건 때문에 사목활동의 어려움을 느끼자, 곧바로 부산의 초량에 대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듬해 7월 부산으로 이주하여 곧바로 공사를 시행하려 했지만, 매매 등 여러 문제로 인해 1892년 봄 이후에야 성당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후임 우도(Oudot) 신부에게 인계하고 전라도 배재 본당으로 전임되었습니다. 1894년 동학 농민 전쟁으로 본당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조조 신부는 주교에게 도움을 청하려 상경하던 중 공주 금강 장기 나루터에서 청나라군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조조 신부는 타국 한국에서 자신이 원했던 전교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부산에서 3년의 사목활동으로 경상남도 북음화의 초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 한건 신부(순교성지사목) jubo@catb.kr



가톨릭 설 차례(茶禮) 예식

천주교 가정 제례는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교적으로 재해석한 예식입니다. 따라서 조상 숭배의 개념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자 가정에서는 기일 등에는 가정의 제례보다 우선하여 위령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35조 1항 참조)

준비

1. 마음과 몸의 준비 : 고해성사를 통해 마음을 깨끗이 하며, 복장을 단정하게 갖춘다.
2. 상차림 : 음식을 차리지 않고 단순하게 추모 예절만을 위한 상을 차릴 수도 있다. 상 위에는 십자가와 조상(고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모시며,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다. 음식을 차릴 때에는 형식을 갖추려 하지 말고 소박하게 평소에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차린다.

시작 예식

성호경

시작성가

가톨릭 성가 50번, 54번, 227번, 436번, 462번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한다.

시작기도

十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조상님들을 기억하며 차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 11, 25~26)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신 주님께 조상님들과 우리 자신을 봉헌하면서 정성된 마음으로 이 예절에 참여합니다.

(잠시 침묵 후에)

十 주님, 이 세상에서 불러 가신 주님의 종()를 받아들이시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성인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도 주님의 뜻 안에서 서로 화목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말씀 예절

성경 봉독

마태 5, 1~12, 요한 14, 1~14, 로마 12, 1~21, 1코린 13, 1~13, 에페 5, 6~20, 요한 15, 1~12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가장의 말씀

가장은 조상(고인)을 회고하면서 가훈, 가풍, 유훈 등을 가족들에게 설명해 준다. 또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가족들이 신앙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권고한다.

추모 예절

분향과 배례

가장이 대표로 향을 피우고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다함께 큰절을 두 번 한다.

위령 기도

긴 위령 기도를 바치거나 노래로 부를 때에는 『상장 예식』(또는 『위령 기도』)을 참조한다. (가톨릭 기도서 P.74~79)

마침 예식

마침성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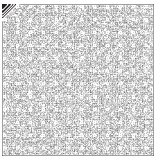
가톨릭 성가 50번, 54번, 227번, 436번, 462번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한다.

성호경

음식 나눔

온 가족이 한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누며 사랑과 친교의 대화 시간이 되도록 한다.

설



제1독서 민수기 6, 22~27

화답송 시편 90(89),2와 4, 5~6,12~13,14와 16 (© 17기)

◎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1.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옵니다.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습니다. ◎
2. 당신이 그들을 끌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3.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 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4.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하신 일

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

제2독서 야고보서 4,13~15

복음환호송 시편 145(144),2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복음 루카 12,35~40

영성체송 히브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부산교구 공원묘원 문의 : 055)374-8733

하늘 공원

설 합동 위령미사

2월 16일(금) 11시
봉안당 내 경당

2월 17일(토) 11시 위령미사

※ 셔틀버스 정상 운행

09:00 남천동 교구청
10:00 온천장 전철역(1번 출구)
10:30 양산 전철역(2번 출구 건너편)

▶ 설 당일엔 셔틀버스 운행하지 않습니다
▶ 조화 반입 금지(설 연휴 기간 생화 판매)



오늘도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데, 미래는 더욱 캄캄해서 불안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왜 겁을 내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마르 4,40) 거센 풍랑으로 배에 물이 가득 들어차 가라앉게 된 지경에서 제자들이 살려 달라 했더니 이렇게 혼내십니다. 이 야단 속에서 오늘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정한 현실과 암울해 보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이란 단어 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겁입니다. 결혼도, 출산도, 직업을 바꾸는 시도도, 질병이나 노후의 삶에 대해서도, 그리고 결국에는 만나고 말 죽음에 대해서도 겁입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피조물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겁먹고 걱정할들 달라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현실과 미래를 아무 근거도 없이 장밋빛으로

바라보는 것이야 과대망상이겠지만, 그와 반대로 암울하고 비관적으로만 보는 염세적인 태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겁을 내느냐?” 이 질책에는 ‘걱정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의 빛이 되어 주겠다.’는 든든한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낯선 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듯이, 광야에서 모세를 또 그렇게 이끄셨듯이, 나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리라는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작 청할 건 어떤 일에서건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맞설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홍경원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장) jubo@catb.kr

교 구

성소분과위원장 연수(교육 및 미사)

· 2.11(일) 09:30~14:00 · 신학대학
문의: 629-8760~2(성소국)

2월 교구 혼인강좌 안내

예비부부와 기혼부부 모두 수강 가능
[부산 지역] 2.25(일) 15:00~18:50
사전 접수 / 선착순 50커플 / 당일접수 불가
문의: 462-1870, www.bccenter.or.kr(가톨릭센터)

예비신학교 등록 안내

대상: 사제성소에 관심이 있는 중1~고2 남학생,
지원자반(2018학년 기준) / 등록방법: 성소국 홈페이지(sungso.catb.kr) 및 교구공문 참조
등록비: 5만원 / 등록마감: 2.28(수)
예신입학식: 3.11(일) 13:30 신학대학

분 당

가야성당 2월 성령치유대피정

· 2.13(화) 12:30~17:00 · 가야성당
(지하철 2호선 동의대학역 7번 출구)
강사: 김재중 형제(파티마의세계사도직), 이병주 신부(미사, 안수, 고해성사) / 문의: 010-6679-5345

괴정성당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모집

문의: 207-3977(사무실)

남천성당 관리원 구함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문의: 623-4528

기관 · 제 단체 · 위원회

빈민사목 후원미사

· 2.12(일) 10:30 · 문현성당
주례: 윤희동 신부 / 문의: 467-1045

빈민사목 반송 빛들레 나눔가게

내용: 의류, 신발, 가방 (새 그릇 택배 및 직배 가능)
문의: 542-0242, 467-1045, 010-2886-6467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 미사

부산: 2.12(월) 11:00 남천성당
문의: 782-0765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 2.12(월) 19:30 · 가톨릭센터 소극장
주제: 평신도 회년과 평신도의 역할
강사: 한상봉(가톨릭일본 편집장)
문의: 465-9508(정의평화위원회) / 무료강의와 미사

해양사목 월미사

· 2.12(월) 14:00 · 가톨릭센터 3층
주례: 이균태 신부 / 문의: 464-2707

Arca 청년성서모임 폐제 미사

울산: 2.12(월) 20:00 울산병영순교성지성당
부산: 2.14(수) 20:00 초량성서교육원
주례: 김정완 신부(부산), 이주홍 신부(울산)
문의: 469-0761, cafe.daum.net/psbiblefamily

교정사목회 후원회 미사

부산: 2.13(화) 14:00 가톨릭센터 경당
울산: 2.24(토) 10:00 옥동성당
문의: 441-7729

꾸르실로 제406차(형제)

제406차(형제): 2.22(목)~25(일) / 마감: 2.12(월)
문의: (055)388-5734, (팩스)388-5733, 본당 간사

부산 체나롤로(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 2.20(화) 14:00 · 가야성당
성모님께 봉헌식과 성체강복 및 안수
지도: 윤명기 신부 / 문의: 010-8879-2376

여성그레고리오성가단 성음악미사

· 2.20(화) 10:00 (매월 셋째 화요일)
· 부산가톨릭신학원 소성전(신학대학 내)
지도신부: 엄철호 신부
문의: 010-4033-9443, 517-8241,2

부산가톨릭선교마라톤회 행사

· 2.25(일) 08:20 · 밀양마라톤현장미사
주례: 윤희동 지도신부 / 문의: 010-6520-8834
버스 출발: 06:30 온천역, 07:00 부민병원 앞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교구 철야기도회: 2.16 휴회(설날)
- 짧은이 성령기도회
· 2.12(월) 19:30 전포성당
· 2.14(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성모님과 함께하는 100단 묵주기도
· 2.12(월) 11:00 (도유안수/중식제공)
- 수요치유기도 2.14(수) 11:00~16:00
*매듭을 푸는 성모님 9일기도(회비 2만원)
강사: 김현조 형제(서울대교구)
09:30 부산역, 09:40 괴정초(대티역) 1번 출구,
10:07 호포역, 10:17 양산역
09:15 전포역 6번 출구, 09:30 시청앞 8번 출구,
09:40 동래역 3번 출구
09:10 해운대 sk뷰, 09:15 대림1차, 09:18 좌동
성당, 09:28 (구)해운대역 *그 외 지역 전화 문의
- 29기 성령묵상회 심화과정 1단계1차(기초봉사회)
· 3.3(토) 15:00~4(일) 17:00
회비: 5만원(교재비 5,500원 별도)
미사, 필기, 세면도구 지참
- 교구 성령묵상회 (일반)
441차(일반): 2.23(금) 19:00~25(일) 17:30
회비: 10만원 (교재비 5천원)
18:30 동래 전철역 3번 출구 앞 지하도 입구

메리놀병원 전례봉사자 구함

평일(11:30), 일요일(09:00) - 해설, 독서, 반주
문의: 461-2296(원목실)

부산성모병원 제12기 자원봉사자학교 모집

접수: 2.1(목)~28(수) / 교육: 3.5~6.4 매주 월요일
문의: 933-7055(자원봉사자실), 홈페이지 참고

음악교육원 심화과정 개강(1년)

음악이론 심화과정(수 13:30~16:30) 15주간
성가발성 심화과정(목 13:30~16:30) 15주간

음악교육원 정규과정 개강(2년)

주간(화 10:30~15:30) / 야간(화 18:50~22:00)
개강: 3.6(화) / 문의: 517-8241~2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995. 2. 13. 정재석(요셉) 신부님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2018학년도 1학기 "영성심리상담사" 수강생 모집

일반과정						심화과정					
교육 과목	요일	수업시간	주	담당교수		교육 과목	요일	수업시간	주	담당교수	
비폭력 대화법	월	10:00~11:25	14	이은령 교수	수	스트레스 이해와 관리	수	10:00~13:00	7	박지선 교수	[일반과정] 교육: 3.5(월)~6.12(화) 수강료: 45만원 개별과목당(10만원) 수강 가능
상담과 의사소통		11:35~13:00	14	유희정 교수		10:00~13:00		7	박종주 신부	[심화과정] 교육: 3.7(수)~6.13(수) 수강료: 20만원 지원자격: 일반과정 수료자	
상담심리이론	화	10:00~11:25	14	임해경 교수	■ 문의: 051-510-0951~3, http://edu.cup.ac.kr						
심리검사		11:35~13:00	14	박정희 교수							
발달심리학	목	10:00~13:00	7	박정모 교수							
중년기심리와 상담		10:00~13:00	7	심혜숙 수녀							

목주반지 전문 금방
다양한 예물, 커플링, 패션제품
서울공예사
범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아)631-5006, 631-5007
황인환(가롤로) · 김경자(모니카)

분도목공소
제대, 강론대, 장례틀 등
각종 성구 제작
www.bund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

나가사키 성지순례
5/14~17(3박 4일) 14명 모집
010-8511-2442, 253-5887
발해투어 www.valhae.co.kr
황 백 현 (프란치스코)

물 세는 곳을 정확히 찾아, 보수
삼일누수탐지공사
수도배관, 보일러배관 등 각종 누수
인터넷 검색어: 삼일누수
202-3011
이 국 영(베드로)

포장이사 전문 업체
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

동국자동차매매상사
신차, 중고차, 매매, 수출, 할부, 폐차
대표전화: 010-3599-6420
현 종 삼(요셉)
자동차매매 관여 제14호 1단지

동국주단
부산일보 강소상인 한복
변 환 현(시몬) 최 상 희(안나)
(본점) 부산진시장 (지점) 자성대 서문 입구
643-7070, 010-9243-5776

사회복지 인 **성요셉의 집**
입 소 상 담
(055)365-1910
장기요양등급 1~5등급
(1~4인실 선택가능)
www.st-joseph.co.kr

거 제 주 단
주단, 포복, 혼수, 예단 도소매
박대수(야고보), 최복순(데레사)
632-0696
010-9331-6633
진시장 1층 주단부 318호 1층 8호로 인쪽 화장실 옆

존재활요양병원
재활중점/노인요양/외래진료
(통증치료, 신경·정형외과)
병원장 최준 식(안토니오)
상담 문의 **525-7711**
부산시 동래구 총령대로 372(안락동)

가톨릭센터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위한 합창단원 모집

대상 : 고음악 합창음악을 함께 하실 남성단원
2차 오디션 : 2.12(월) 20:00 가톨릭센터 302호
- 자유곡 1곡과 Polyphony초견 (악보 당일 제시)
정기연습 예정일 : 매주 월 19:00 가톨릭센터 302호 / 문의 : 462-1870(가톨릭센터 행정실)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수강신청 : 본당 사무실,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www.bccenter.or.kr), 신학원 카페(cafe.daum.net/catholic-sinhak) / 문의 : 462-0334(월~금, 14:00~17:00), logos1981@daum.net

가톨릭간병인회 간병사 모집

간병경력자 및 요양보호사자격증소지자
부산성모병원, 메리놀병원 개인간병사
문의 : 933-7042, 010-3572-7045

가톨릭심리상담소 행복나눔의전화 : 463-7866

상담 : 월~금 10:00~16:30(중구 대청동)
내방상담 : 신자, 비신자 및 타종교인(전화 예약)
청소년 진로 및 심리상담 : 토요일 10:00~16:30
상담사 :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 박사) 및 전문상담사

제5기 영성심리상담 강좌(1학기 기초과정)

· 2.26~6.18 매주 월 14:00~17:00
· 가톨릭센터 3층 / 과목 : 영성과 심리상담, 가족상담 및 치료, MB에 의한 영성과 기도생활, 심리검사 강좌료 : 20만원(모든 교재 무료 제공)
강사 : 조옥진 신부, 이상훈 박사
특혜 : 한국상담심리학회 및 상담학회 수련과정 인정 / 문의 : 463-7866, 010-6742-0106

오순절평화의마을
입소 안내 주변에 아래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면 안내바랍니다.
[입소 대상자] 18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는 노숙의 위험이 있는 자로서
① 무연고자 ② 연고자의 노령이나 사망으로 부양이 어려운 장애인 ③ 연고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로서 생활능력이 없는 자
*부산/밀양 이외 지역은 입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 : (055)352-4241(내선816/818)

교육 · 모집 · 기타

사랑의성모수녀회BPS 후원가족미사

· 2.12(월) 14:00 · 수녀원
문의 : 756-3266, 010-5648-3266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회 미사

· 2.12(월) 11:00 · 부곡동수녀원
· 2.13(화) 10:00 · 이기대성당
문의 : 582-1774, 010-9081-1743

예수고난회 은인 1일 피정

· 2.12(월) 14:00~17:00 · 중앙성당 소성전
주제 : 성경 안의 사람 - 저승문으로 간 히즈키야
(이사 38,9~20) / 강사 : 강수근 신부
문의 : (02)924-8627, 010-9309-1388

이태석 신부 참사랑실천사업회 정기총회 및 후원 감사의 날

· 2.24(토) 14:00 · 송도성당 대강당
문의 : 241-1601, 253-1601

부산 마리아 학교 수강자 모집

· 2.20~8.7 매주 화요일
[낮반] 14:00~16:00 [저녁반] 19:00~21:00
[청년반] 2.19~5.14 매주 월요일 19:00~21:00
회비 : 일반-15만원, 청년-8만원(분납 가능)
· 마리아 피정 센터 / 내용 : 성경, 전례, 역사 속 마리아, 영성, 발현, 사도직 등
문의 : 010-9620-4820, 634-4845
우리 1006-301-276411 티옴신성심

<신난다 첫영성체 교리>교사 연수(기초,심화)

· 3.2(금)~3(토) 09:30~16:30 · 푸른나무교육관
문의 : (02)945-3300, 010-3193-3348(생활성서사)

소화테레사유치원 2018년 방과후반교사 모집

자격 : 유치원 2급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소지자
문의 : 010-6877-1258, sita61@hanmail.net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3.19(월)~22(목) · 나가사키순례
· 4.23(월)~5.5(토) · 서유럽성모성지
부산 출발 / 문의 : 010-3837-6434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티옴신마리아성심수녀회	2.18(일) 13:30	본원	010-2835-4858
살레시오회	2.24(토)~25(일)	대전 살레시오 청소년 수련원	010-3894-1332

부산가톨릭대학교
인간존중 생명사랑
2018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총원 및 등록
■ 원서접수 2월 9일(금)~21일(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cup.ac.kr) 참조

부산성모병원 건강증진센터 통합·이전
부산성모병원에서는 공단검진 및 암검진,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편의증진을 위해 통합·이전한 건강증진센터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문의 : 933-7672~3(건강증진센터)
부산성모병원은 감동으로 다가갑니다

가톨릭신문 복음 문화 나눔 행복 한 세상
무료영화상영 **유다** 일시: 2/19(월) 19:00 장소: 가톨릭센터 소극장 (예술전문관C&C)
[더 바이블 시리즈] 내용 : 바티칸이 선정한 가장 위대한 영화 더 바이블 시리즈 18:00 후원 감사 미사(센터 경당) / 다과 / 영화 관람 **가톨릭센터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 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 · 탈자를 발견하시면 카톡 플러스친구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 국가 공인 1급 조율사 지역절 - 야마하중고피아노직수입 삼익영창그랜드피아노판매 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상(클라로) · 이정미(노엘라) 851-4545, 010-3597-4641</p>	<p>임플란트, 심미보철, 교정치료 성모치과 원장. 송치원(라우렌시오) 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1번 출구 50m</p>	<p>동래로타리 독일보청기 교우특별할인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지하철 수안역 7번 출구 앞(국민은행 옆)</p>	<p>갑상선 · 당뇨 · 고혈압 · 골다공증 김용기내과의원 [충무동 구, 김동수 내과] 원장 김용기(T. 아퀴나스) 전 부산의대 학장 외 내과전문의 8명 상담 및 예약 245-7100</p>	<p>전국 성지순례, 제주도 성지순례 겨울스키캠프, 관광버스 대절 동부고속관광 김승범 (안드레아) 010-6321-3999</p>
<p>제이스 귀금속 최신형 패시제품, 예물과 커플링 목주반지, 남성용 주얼리 전문매장 633-4549, 634-4539 박정희(요엘) 손혜경(요세파) 010-8661-3631, 010-3558-3630 범일동역 12번 출구 중앙귀금속상가 125호</p>	<p>동래참사랑재활요양병원 광안참사랑재활요양병원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홍수(아교보) 광안 : 751-1515 김병희(야네스)</p>	<p>미래고속관광 45인승/리무진 관광버스 22대 성지순례, 결혼식, 각종행사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 대표. 우종한(리차드) 055-333-6300, 010-3720-0303</p>	<p>박숙현 정신건강의학과의원 공황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치매, 횡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숙현 (에스텔) 611-3339 남천 지하철역 3번 출구, 대남빌딩 5층</p>	<p>사랑니 발치, 임플란트, 심미보철 다이엔치과의원 이갑승 (라파엘), 이정환 (다니엘) -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진료 - 514-0100 지하철 남산역 2번 출구</p>